

奎章閣設置直前の 圖書館史資料

韓國圖書館史研究抄 (十二)

朴 熙 永

目 次	
第一節 機關과 施設	第三節 實 錄
1) 校 書 館	第四節 圖書撰修 및 刊行
2) 弘 文 館	第五節 外國과의 關係
3) 成 均 館	1) 淸
4) 經書校正廳	2) 日 本
5) 書 院	3) 對 馬 島
第二節 鑄 字	

奎章閣設置直前이라고 하였으나 壬辰亂以後 黨爭이 最高潮로 激甚하던 孝宗, 顯宗, 肅宗의 4代(1650~1724)를 劃하였다.

前後6年間이나 史上最惡의 困難을 겪으면서 까지도 끝낼 줄 모르는 黨爭은 國寶的인 建築物, 書籍, 美術品等 文化財가 焚掠으로 因하여 거이 全無狀態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痼疾인 黨爭은 繼續하여 顯宗元年(1660)의 孝宗의 服制問題, 顯宗15年(1674) 仁宣大妃의 服制問題, 肅宗6年(1680) 庚申大黜陟, 肅宗15年(1689) 己巳換局, 肅宗20年(1694) 甲戌獄事, 景宗2年(1722)辛壬士禍等等的 政治의 事件이 發生하여 政治는 어지러워지고 甚至於는 世子의 悲慘한 犠牲까지 보게 되더니 漸漸復古의 氣運이 일어나고 한편 淸의 康熙文化의 影響을 받게 되어 王統確立, 王權擁護를 目的으로 하는 復古運動이 있게 되었다.

한편 壬辰亂때 全部 散失되었던 活字도 整備하여 印刷도 繼續하게 되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英祖, 正祖의 文藝復興의 風潮를 盛하게 해주었고 刺戟하게 되었다.

1) 校書館

校書館은 第1期로 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壬辰亂으로 因하여 全國 坊坊曲曲의 全分野에 걸친 被害는 莫甚한 것이 있으며 全國에는 全秩의 書籍이 絶無한 狀態이었다.

校書館의 被害도 甚하여 鑄活字는 壬辰亂으로 散失되어 없어졌고 亂後의 朝野의 여러 事情으로 다시 鑄字할 수 없어서 校書館에서는 木活字로서 書籍을 印刷하고 있었는데 木活字는 字樣이 精細하지 못하여서 顯宗9年(1668) 8月5日에는 前戶曹判書이던 金佐明이 銅鑄로서 鑄字하여 印刷하게 되어 비로서 公私의 書籍이 精細하게 되었던 것이다.

校書館은 金佐明이 銅活字로 鑄字한 以前에 孝宗9年(1658) 5月3日 龍飛御天歐의 刊布를 受命하여 孝宗10年(1659) 3月18日

에 이를 刊行하였고 肅宗元年(1675) 12月 18日 王이 貞觀政要를 刊進케 하였고 肅宗6年(1680) 6月16日에 小學, 三綱行實記를 印刷케 하였다. 또한 肅宗11年(1675) 7月28日에는 宋浚吉의 文集을 肅宗12年(1686) 正月13日에는 金壽興, 宋時烈이 註解한 節酌通編과 金長生의 文集을 刊行토록 受命하고 있다. 이와같이 校書館은 여러해에 걸친 亂後임에도 不拘하고 木活字 또는 銅活字로서 圖書를 印刷하여 圖書文化的 發展을 中斷함이 없이 事業을 繼續하였다.

- ① 顯宗改修實錄 卷19 顯宗9年8月辛未條
- ② 孝宗實錄 卷20 孝宗9年5月己亥條
- ③ " 卷21 " 10年3月己酉條
- ④ 肅宗實錄 卷4 肅宗元年12月辛未條
- ⑤ " 卷9 " 6年6月癸酉條
- ⑥ " 卷16 " 11年7月丙戌條
- ⑦ " 卷17 " 12年正月丁卯條

2) 弘文館

弘文館은 第3期로 부터 繼續되는 官署이다.

孝宗6年(1655) 4月9日 弘文館은 列聖狀誌를 蒐集하여 繕寫投進하였고 顯宗15年(1674) 7月11日에는 修撰 金萬重이 考證한 天下地圖를 撥進하고 있다. 이와 같이 弘文館도 事業을 繼續하였다.

- ① 孝宗實錄 卷14 孝宗 6年4月癸亥條
- ② 顯宗實錄 卷22 顯宗15年7月癸酉條

3) 成均館

成均館은 既述한 바와 같이 國家의 最高教育機關 最高學府로서 成均館에는 大學圖書凋格인 尊經閣 또는 藏書閣이 있었는데 그間 成均館으로서의 圖書出版에 관한 記錄이 別로 보이지 않더니 肅宗10年(1684) 5月12日에는 成均館에서 四書, 三

經大會疏解와 心經, 近思錄을 刊行하고 있는바 所謂 大學出版物이라 말할 수 있다.

- ① 肅宗實錄 卷15上 肅宗10年5月丁丑條

4) 經書校正廳

前回에서 既述한바와 같이 宣祖18年(1588) 正月에 經書訓解를 校正하기 爲하여 校正廳을 設置한바 있었으나 顯宗9年(1668) 8月7日에는 經書校正廳이라는 機關을 成均館에 두었다고 하는바 廳이라고 불는 官署나 機關은 恒久的인 것도 있지만 大旣가 臨時的인 機關인 것으로 미루어 宣祖때의 校正廳은 校正을 끝마치고 顯宗때 새로이 經書校正廳을 成均館에 設置한 것이라고 보겠으며 經書의 校正事業은 마땅히 成均館에 設置할 것이라고 하겠다.

- ① 宣祖修正實錄 卷19 宣祖18年正月條
- ② 顯宗實錄 卷15 顯宗9年8月癸酉條

5) 書院

書院은 第3期때 부터 繼續되는 私學機關이다.

中宗38年(1543) 周世鵬이 紹修書院을 設立한 以後 繼續해서 여러곳에 書院이 設立하게 되었는데 書院은 次次로 書院이 目的하는 바와는 달리 黨論의 策源地가 되어 가고 있었다. 理學의 興隆으로 學閥이 생기고 師承의 關係로 黨論이 갈리어 지고 그러면서 有利한 立場에 있는 여러 官員은 競望하여 醜雜한 朋黨을 結成하고 각기 書院을 建立하여 學問 修養의 道場이란 美名下에 黨論 黨議鍊磨의 府로 書院을 利用하였다. 그리하여 形式的인 問題인 禮論으로 深刻한 對立을 보아 王位 繼承까지 左右하는 問題로 發展하게 하였다. 宣祖8年(1575)에 東人, 西人으로 分黨한것이 東人은 다시 南人, 北人으로 北

人은 다시 大北, 小北으로, 大北은 다시 骨肉中淸濁으로 小北은 淸小北, 濁小北으로 이와 같이 갈리우고 또 갈리워서 肅宗 9年(1683)에는 所謂 南人, 北人, 老論, 小論의 所謂 四色黨派로 갈리워졌다. 그러므로 이時代를 黨爭最高潮時代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黨派가 갈리워짐에 따라 書院이 많이 設立하게 되었고 이들 書院에는 王으로 하여금 賜額케하고 있다. 이時期에 賜額된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孝宗 2年(1651) 9月29日 李滉의 春川書院
- “ 5年(1654) 8月10日 奇大升의 書院
- “ 9年(1658)10月21日 金長生의 書院
- “ 10年(1659) 2月 9日 金恒福의 書院
- “ 2月10日 李珥의 書院
- “ 潤3月28日 金長生, 金集의 書院
- “ 李珥, 李穡의 書院
- “ 宋麟壽의 書院
- “ 金麟厚의 書院
- “ 宋麟壽, 鄭礪의 書院
- “ 李滉, 鄭述의 書院
- “ 李珥의 書院
- “ 盧禎의 書院
- “ 李恒福의 書院
- 顯宗 9年(1668)10月28日 金安國, 金正國의 書院
- “ 12月 5日 柳希春의 潭陽書院
- “ 金長生의 安城書院
- “ 金尙容, 金尙憲

- 의 定州書院
- “ 10年(1669) 3月11日 趙憲의 書院
- 肅宗 2年(1676) 2月-2日 李滉의 安東書院
- “ 10月25日 鄭夢周, 金安弼, 鄭汝昌, 李彥迫, 李滉 五人의 合祀인 道南書院
- “ 4年(1678) 3月 6日 李好益의 書院
- “ 7年(1681) 4月27日 鄭夢周의 書院
- “ 趙光祖의 書院
- “ 李滉의 書院
- “ 李珥의 書院
- “ 成渾의 書院
- “ 趙憲의 書院
- “ 9年(1683)10月16日 禹倬書院
- “ 21年(1695) 7月13日 宋時烈的 水原書院
- “ 9月19日 宋時烈的 井邑書院
- “ 宋浚吉의 文義書院
- “ 10月 1日 李義健의 廣州書院
- “ 趙棟의 廣州書院
- “ 22年(1696) 9月 6日 宋時烈的 淸州 革陽書院
- “ 23年(1697)10月 1日 文會書院
- “ 33年(1707) 9月20日 趙光祖의 寧邊書院
- “ 39年(1713) 4月 5日 漣川의 朱子書院

※參考 韓國史辭典

第二節 鑄 字

顯宗13年(1672) 10月4日 守禦廳이 啓하기를 銅鑄大字 66,100餘字 小字 46,600餘字가 있어 이를 校書館에 移送하게 하였

다고 있는바 이 銅鑄字는 金佐明이 守禦使로 있을때 鑄字하였다고 한다. 이以前인 顯宗9年(1668) 8月5日 記錄에 보면 校書館의 鑄字가 壬辰의 兵亂에 依하여 散失된 以後 다시 鑄字할 수 없어 다만 木字로서 印書하였기 때문에 字樣이 甚히 精細하지 못하였는데 이지음에 이르러 前戶曹判書 金佐明이 銅鑄로 鑄字한 것을 使用하게 되어 公私書籍이 비로서 精細하게 되었다라고 있는바 이것으로 본다면 壬辰亂 以後 校書館自體가 亂으로 因하여 散失된 活字를 復舊하지 못하였고 金屬活字로 印刷하게 된것은 金佐明이 戶曹判書로 있으면서 銅鑄로 鑄字하고 守禦使로 있으면서 또 銅活字를 鑄字하게 되어 비로서 復舊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肅宗21年(1695) 3月21日에는 朴泰當이 金錫胄의 집에 鑄字가 있는데 이를 戶曹가 買收하여 書籍을 印할것을 請하고 있는바 金錫胄은 各議政을 지낸바 있으며 肅宗21年(1695)은 金錫胄이 이미 死亡한 後의 일로서 金錫胄의 집에 어찌하여 鑄活字가 있게 되었는지를 알수 없으나 買收云云한 點으로 보아 個人들도 所持한 者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① 顯宗改修實錄 卷26 顯宗13年10月乙酉條

② 顯宗實錄 卷15 顯宗9年8月辛未條

③ 肅宗實錄 卷28 肅宗21年3月壬午條

第三節 實錄

孝宗4年(1653) 11月6日에는 江華史閣이 失火하여 實錄2卷과 儀軌諸冊이 모다 燒失하였기에 知春秋 李厚源 史官 安後說等에 點檢을 命하였다.

顯宗5年(1664) 11月23日에는 領相 鄭太

和가 王에게 말하기를 史官李選의 啓中에 江華所藏의 別聖實錄의 未完卷秩을 補缺하는일을 先朝때 부터 議論이 있었으나 凶年이어서 舉行되지 못하였다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 各相 許積이 말하기를 史記는 甚히 重함으로 다른 弊를 돌볼수 없는 일이다. 다른 곳의 所藏된 記錄을 速히 傳寫補缺할 것이라고 말한즉 王이 말하기를 明春에 赤裳에 所藏된 實錄을 奉來하여 傳寫하라고 命하였다. 그리하여 顯宗7年(1666) 正月9日 同知春秋 李尙眞等이 騰書한 實錄을 江華史庫에 奉安하였는데 落卷 落張한 實錄의 數가 合하여 三百餘卷이나 되었는데 江華의 實錄이 비로서 完備되었다. 그러나 文宗朝實錄一卷은 다른 史庫도 모다 缺해 있으므로 騰書補缺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또한 다른 實錄들도 落字, 誤字가 甚히 많아서 完全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했다.

肅宗12年(1686) 11月3日 檢閱 朱曦錫의 書啓中에 光海君日記를 草本으로 藏함은 未安한 일이다. 魯山 燕山朝日記는 印出藏置하기를 이를 中草로서 藏하고 있으니 仁祖朝修正時에 단지 二本만을 書하여 赤裳, 江華에 藏하고 太白山에는 中草를 藏하고 있음은 日記와 實錄의 輕重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後轉함에는 だ름이 없으니 마저 印出하여 藏할것을 啓한바 너무 凶荒하여 이를 할수 없으니 明年에 適宜處理토록 하였다.

肅宗30年(1704) 11月29日 撰輯廳이 端宗實錄附錄을 撰進하였는데 端宗實錄의 附錄을 撰하게 된것은 以前에 大臣들이 議論하여 撰輯廳을 設置하여 端宗의 復位時의 事實과 復位時의 敎會文, 謚冊等の 文을 備錄하여 石室에 同藏하고 魯山日記

라題하여있는 것을 端宗大王實錄이라改書하고 그일을 附錄中에 記載케 한데 依하여 이루어 졌다.

第五期는 孝宗으로 부터 景宗까지를 劃하였으므로 第四期中에 이루어진 實錄은 孝宗은 先王인 仁祖로 부터 孝宗, 顯宗, 肅宗의 四代 實錄이 이루어진 것이다.

仁祖實錄은 孝宗元年(1650) 8月1日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孝宗4年(1653) 7月1日 50卷을 完成하였다.

孝宗實錄은 顯宗元年(1660) 5月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顯宗2年(1661) 2月에 22卷을 完成하여 顯宗2年(1661) 8月26日 各史庫(江華, 五臺山, 赤裳山, 太白山)에 各各奉安하였다.

顯宗實錄은 肅宗元年(1675) 5月부터 撰修를 始作하여 肅宗3年(1677) 9月11日 22卷을 完成하였다.

顯宗改修實錄은 肅宗6年(1680) 7月에 撰修를 始作하여 肅宗9年(1683) 3月11日 24卷을 完成하였다.

肅宗實錄은 景宗即位年(1720) 11月에 撰修를 始作하여 英祖4年(1728) 3月에 65卷을 完成하였다.

- ① 孝宗實錄 卷11 孝宗 4年11月戊戌條
- ② 顯宗實錄 卷 9 顯宗 5年11月庚戌條
- ③ " 卷11 " 7年正月庚寅條
- ④ 肅宗實錄 卷17 肅宗12年11月癸未條
- ⑤ " 卷40 肅宗30年11月乙丑條
- ⑥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

仁祖實錄 凡例

孝宗實錄 凡例

顯宗實錄 凡例

肅宗實錄 凡例

第四節 圖書撰修 및 刊行

第五期中에 있어서 撰修 및 刊行된 圖書를 추려보던 다음과 같다.

孝宗元年(1650)

尹彬 著書인 古鑑錄 一卷을 進

孝宗3年(1652)

柳淦 柳崇祖의 著書인 大學綱目十箴,

性理淵源撮要를 進

孝宗4年(1653)

石之珩 五行龜鑑을 進

孝宗5年(1654)

國朝寶鑑의 印出을 命

孝宗6年(1655)

藥學軌範의 刊印을 命

申沔 農家集成을 刊進

孝宗7年(1656)

昭惠王后(世祖后) 撰 內訓의 刊印을 命

金正國 編 警民篇의 刊印을 命

孝宗9年(1658)

龍飛禦天歌의 刊布를 命

孝宗10年(1659)

龍飛禦天歌를 刊行

顯宗元年(1660)

趙復陽 趙震의 著書인 心學圖說을 進

申沔 掾荒撮要를 進

顯宗5年(1664)

李尙眞 安命老의 著書인 兵書演奇新編

을 進

金佐明 紀效新書를 印하여 各營鎮에 分

送

金益廉 歷代妖星錄을 進

顯宗6年(1665)

龍飛御天歌, 五禮儀, 大明律, 大典四書

三經, 性理大全, 通鑑, 先儒文集을 威

鏡道에 印送을 命

顯宗8年(1667)

淸國 新頒 曆書의 印布를 命

顯宗9年(1668)

李沃 歷代修省便覽을 進
小學及 小學診解의 印布를 命
宋浚吉 太極陰陽圖를 寫進

顯宗10年(1669)

經國大典 100件的 印出頒賜을 命

顯宗13年(1672)

經書를 濟州에 印送을 命

顯宗15年(1674)

弘文館 天下地圖를 進

肅宗元年(1675)

許穆 心學圖를 進
貞觀政要의 刊進을 進

肅宗2年(1676)

柳命堅 明의 薛瑄의 著書인 讀書錄을 進

肅宗3年(1677)

崔宣 中庸衍義를 撥進

肅宗5年(1679)

朗原君侶 瑋源譜略을 進
尹鏞 圖說을 進

肅宗6年(1680)

李珥의 聖學輯要의 繕寫를 命

肅宗7年(1681)

校正廳 瑋源錄 51卷 이록
宋時烈 心經釋疑를 進

肅宗9年(1683)

朴世采 心學旨訣을 進
宋時烈 朱子大全筭疑을 進
宋時烈 朱子大全筭疑을 修進
昌成君侶 醫方을 進

肅宗10年(1684)

成均館 四書, 三經大全診解及 心經, 近
思錄을 刊

肅宗11年(1685)

宋浚吉의 文集의 刊給을 校書作에 命

肅宗12年(1686)

金壽興, 宋時烈註解 節酌通編의 刊行을 命

金長生文集의 刊行을 校書館에 命
宋時烈 朱子大全筭疑을 進

肅宗13年(1687)

大典續錄及 列鮮受教의 刊行을 命

肅宗14年(1688)

金邦翰 易解3冊을 進

肅宗15年(1689)

許穆의 著者의 刊行을 命
鄭介淸의 著書인 思得錄의 寫進을 命

肅宗17年(1691)

李玄錫 易義類斑을 進

肅宗20年(1694)

大明集禮의 校讎鈔梓을 命
朴世采의 小學攷證을 進

肅宗21年(1695)

朴泰殷 朴世采의 小學集註附錄을 進

肅宗27年(1701)

江華島地形圖를 進

肅宗32年(1706)

崔錫鼎 典錄通考 12卷을 撥進

肅宗34年(1708)

大學衍義輯略을 進

肅宗40年(1714)

儀象志 13冊 圖 2冊을 이록
李漢謙 李玄錫의 著書인 明史32冊을 進

肅宗43年(1717)

宋時烈의 文集을 刊

第五節 外國과의 關係

1) 淸

明은 1662年에 完全히 滅亡하고 淸과 外交하게 되었다. 圖書를 中心으로 하는 淸과의 關係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肅宗4年(1678) 3月27日

淸의 使臣이 還國하면서 石洲挹翠, 荷谷, 五峯, 蘭雪, 圃隱의 各文集, 正氣歌, 桂苑筆耕, 各略, 古文眞寶, 近代墨刻法帖, 東人科體表賦詩論 12篇을 가져가다.

肅宗7年(1681) 7月9日

淸國의 商船이 大風으로 因하여 많이 羅州, 智島等의 漂到하였는데 4,000餘卷의 佛經이 있어 南漢寺刹에 分賜하다.

肅宗21年(1695) 1月12日

淸使에게 東文選, 靑丘風雅 寫本하여 이를 주다.

肅宗39年(1713) 3月30日

淸으로 부터 도라온 金昌集等이 淸의 王이 보내는 全唐將古文淵鑑, 佩文韻府를 合하여 300餘本을 進하다.

2) 日本

日本과의 關係는 壬辰亂 當時 많은 圖書를 가져 갔으며 印刷術도 아울러 日本에 傳習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日本은 書名을 指定해서 圖書를 求하고 있다.

孝宗4年(1653) 11月

日本은 平城政을 遣하여 儀禮經傳道解, 中庸衍義, 醫巫問集, 性理群書, 張南軒集, 資治通鑑, 朱子語類, 二經全書, 易學啓蒙, 小學, 四書大全, 五經大全, 朱子大全, 退溪集을 求하여 왔는데 이中에 있는 것만을 給하였다.

顯宗3年(1662) 2月

日人이 李退溪文集을 求하였으나 不許하였다.

顯宗3年(1662) 3月

日人 東醫寶鑑, 醫林提要를 求하여 이를 許可하였다.

顯宗4年(1663) 8月21日

對馬島太守가 江戶執政의 請에 依하여 四書, 五經, 性理大全, 史記評林, 朱子

語類의 貿易을 請하였는데 語類評林만을 許하였다.

顯宗5年(1664) 閏6月3日

日人 退溪集, 政事提要를 求하여 왔으나 不許하였다.

顯宗11年(1670) 6月

日人 儀禮經傳續通解, 啓蒙翼便, 大學章, 句補遺, 中庸九徑衍義, 朱子節要, 備急草本, 醫學入門等을 求하여 왔다. 極히 禁하고 있었음을 肅宗38年(1712) 4月22日 記錄으로 알수 있다. 한편 日政時代에는 日人들이 韓國內에서 이를 禁止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肅宗實錄 卷51 肅宗38年4月 甲戌條

肅宗5年(1679) 7月

日人 李退溪集, 東文選集等을 求하였는데 不許하였다.

顯宗17年(1691) 7月1日

日人 書冊의 貿易을 願하였는데 이를 許可하였는데 모두 儒家의 書籍이다. 柳成龍이 著述한 懲惡錄은 지금 壬辰亂 當時의 研究資料로서 所重한 것이다. 當時는 이 懲惡錄이 日本으로 流出됨을

3) 對馬島

第5期에서 對馬島가 求한 圖書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顯宗元年(1660) 3月

朱子語錄, 朱子大全

顯宗4年(1663) 8月21日

四書, 五經, 性理大全, 史記評林, 朱子語錄 ※史記評林, 朱子語錄만 주다.

顯宗4年(1663) 12月

退溪集, 玲瓏鐵鞍, 赤金, 性理群書, 句解, 四書輯釋, 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 史記評林, 朱子語類,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顯宗12年(1671) 7月

東國詩格, 呂東萊讀書記, 司馬溫公傳家集, 陳氏樂書, 五經稟疏, 故雲峯易通解, 春秋纂書, 故芳庭纂書